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2.24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40.00원 (-6.60원)

KOSPI

5,846.09 (+37.56, +0.65%)

KOSDAQ

1,151.99(-2.01, -0.17%)

국고채 10년 금리

3.578(+0.038%p)

Special Report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무엇을 볼 것인가? [김록호]

Global Asset Strategy

DIN (Doo It Now)	관세 소음 뒤의 시간: 실효세율, 이연, 환급의 3가지 창 [김두언]
Global Macro Alert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전규연]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Nvidia 실적 [박승진]
해외크레딧	돌아온 김치본드, 그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하형민]
신흥국 전략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 영향 점검 [김근아]

기업분석

KT	3월 전략 – 자사주냐 배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홍식]
LG유플러스	3월 전략 – 호재 상존, 여기서 더 오를 것입니다 [김홍식]
SK텔레콤	3월 전략 – 5G SA 진화 감안 시 한참 더 오를 것입니다 [김홍식]
CJ프레시웨이	코스닥 내 돋보이는 실적주 [심은주]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 매출 성장과 마진 상승 기대 [유재선]

Monthly & Weekly

통신서비스 3월 투자 전략	곧 5G SA 시대에 걸맞는 주가 형성될 것 [김홍식]
건설	다양했던 원전 뉴스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미국 이슈 코멘트	무역 및 건설 지표로 보는 미국 AI 인프라 [강재구]
에어버스	2026년 인도량 가이던스 870대(+10%) [안도현]
에퀴닉스	P, Q 고성장, 그리고 사상 최대 수주 [하민호]
Albemarle	ESS 강세로 인해 장기 리튬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 [김현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SK이노베이션, 삼성증권, 대한항공, 아이에스동서, 에코프로비엠, 쏠리드, 하림지주, 시지메드텍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6년 2월 24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반도체

무엇을 볼 것인가?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2월 23일

삼성전자(005930)
BUY | TP 250,000원 | CP 193,000원

SK하이닉스(000660)
BUY | TP 1.450,000원 | CP 951,000원

피에스케이(319660)
BUY | TP 90,000원 | CP 56,500원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
BUY | TP 120,000원 | CP 79,100원

씨엠티엑스(388210)
BUY | TP 210,000원 | CP 149,000원

원익머트리얼즈(104830)
BUY | TP 65,000원 | CP 43,900원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yg.kim@hanafn.com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

추론 AI의 고단화 및 보편화로 인해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 워크로드가 폭증하면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 및 훈련용 AI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3~2024년은 GPU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수요가 급증했다. 해당 시기에는 AI 수혜가 HBM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25년 Deepseek 등장 이후에 오픈 모델의 가파른 성장은 추론 AI의 침투 속도를 가속화했다. 이로 인해 추론 AI에 의한 서버 및 데이터센터향 일반 DRA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6년 수요의 축은 HBM과 서버향 DRAM이며, 해당 수요는 전년대비 40% 증가해 전체 DRAM 수요에서 43%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B2C 부담 증가하지만, B2B 커버 가능하다

예상보다 빠른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스마트폰 및 PC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및 PC의 제조원가 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초반대인데, 최근 3개 분기의 가격 상승만 반영해도 2배 이상 원가 비중이 확대되었다. 당장 26년 1분기부터 B2C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기존대비 5~6%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저가 스마트폰 및 PC의 생산 및 출하 계획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전체 DRAM 수요를 기존대비 4~5% 하향하는 것인데, 서버 DRAM의 수요가 이를 상쇄하며 수급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I 생태계 내에서 스토리지 역할 강화

스토리지가 과거 단순 데이터 저장소 역할에서 벗어나 AI 모델의 성능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GPU 연산 속도도 중요하지만, 모델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를 GPU로 실시간 공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론 AI 비중이 확대되고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방대한 지식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고속 스토리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스토리지 수요는 NAND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및 장비/소재 업체 비중확대 추천

메모리 및 소부장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지속 추천한다. HBM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전공정 및 HBM 관련 장비 업체들의 실적 증가가 돋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소재 업체들은 DRAM보다 NAND 업황에 실적이 연동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NAND 고단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2026년 실적 증가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에스케이와 씨엠티엑스, 원익머트리얼즈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관세 소음 뒤의 시간: 실효세율, 이연, 환급의 3가지 창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김민근 연구원 minkeunkim@hanafn.com

(결론적으로) 시장은 늘 한 박자 먼저 움직인다. 악재가 드러나면 놀라기보다 "그 다음 장면"을 찾는다. 지금 관세를 둘러싼 소음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이 기대를 거는 포인트는 결국 세 가지다. 실효관세율이 내려갈 여지, '플랜B'로 넘어가기 전의 시간차, 그리고 관세 환급이라는 상방(Upside) 옵션이다.

첫째, 실효관세율의 하락 가능성이다. 연방대법원이 IEEPA 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 122 조를 꺼내 들며 글로벌 관세를 최고 15%까지 올렸다.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전 품목 관세로 연결되면 실효관세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은 숫자보다 예외의 힘을 본다. 기존에 제외되던 품목의 면제가 유지된다면, 실효세율은 약 1.5%p 내외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이 이미 공개한 제외 리스트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광물,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는 관세의 칼날이 전면전이 아니라 선별전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관세는 때로 '부과'보다 '이연'이 더 큰 이벤트가 된다. 무역법 122 조는 즉시 발동이 가능하지만 부과 기간이 최대 150 일로 제한된다. 핵심은 그 종료 시점이다. 11 월 중간선거를 불과 3 개월 남긴 시점에 플랜 B'무역법 301·201, 관세법 338, 무역확장법 232'를 연쇄적으로 덧씌우기에는 부담이 크다. 특히 301 조는 USTR 조사 착수부터 실제 부과까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 를 동시에 전면 가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관세 충격의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 즉 시간이 생기는 구간이 열린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는 하나다. 2018~2019 년처럼 232 조가 다시 트리거가 되어, 301 조의 표적 관세(상한 없음)와 122 조의 광범위한 조치가 결합되는 "복합 패키지"가 재현될지다. 관세의 본질은 세율이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이다.

셋째, 관세 환급은 길게 보면 옵션이고, 짧게 보면 업사이드다. 환급이 된다면 기업 실적은 즉시 숨을 돌린다. 환급이 없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환급 판단을 유보하고 하급심으로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슈의 성격을 말해준다. 환급 대상, 규모, 시점, 지급 경로 등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확정 변수"가 아니라 상방에 열려 있는 불확실성으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구조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간다.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관세가

몇 %냐"가 아니라, 미국의 펀더멘털이 꺾였느냐,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흔들릴수록, 정치의 시선은 종종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한다.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란발 변수, 4 월 초 예정된 중국 정상회담이 '이슈의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다.

미국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표면만 보면 4 분기 GDP(연율 1.4%)가 둔화 신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숫자는 이면을 봐야 한다. 43 일 셧다운이라는 일시적 충격이 있었다. 성장 기여도에서도 정부 부문이 -0.9%p 로 크게 깎였다. 셧다운이 일단락된 뒤 소비심리는 반등 조짐을 보이고, AI 혁명은 생산성의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진다. 2026 년 미국 경제는 2%대 중후반의 성장 궤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원하는 대답은 "침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장률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느냐"다.

불확실성은 커졌다고들 말한다. 맞다. 다만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뉴노멀이 된 불확실성은 위험선호를 꺾기보다, 자금의 방향만 바꾼다. 재정지출 확대와 관세 행정명령이 이어질수록 달러에는 약세 압력이 쌓일 수밖에 없다. 달러가 흔들리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탈미국을 고민한다. 그 흐름의 끝에는 아시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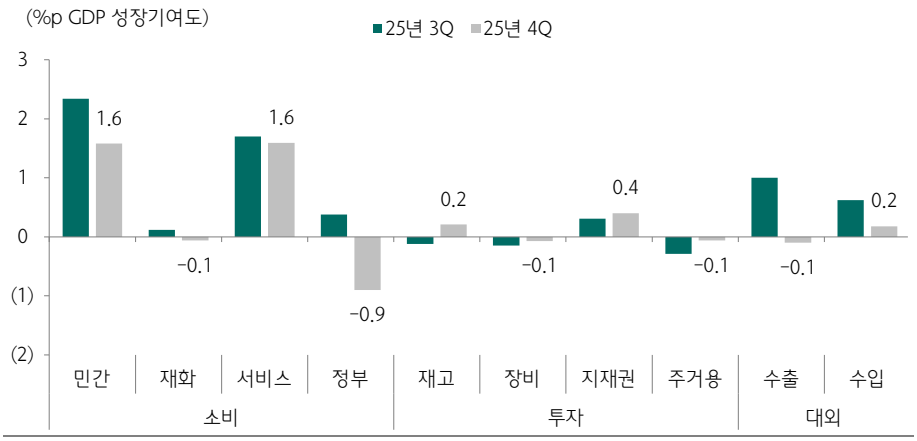
그리고 아시아 안에서 한국은 유난히 이야기거리가 많다. AI 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절대적 공급부족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메모리 반도체, 상법 3 차 개정 등 정책 기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겨가는 가계 포트폴리오의 대전환. 이 세 가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에 가깝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선행지표로 작동해 온 오래된 문법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 시장은 늘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도표1.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조치들

관세 부과 근거	내용	사전조사 필요 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
무역법 제122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 전품목 대상 가능 - 1974년 제정	X	150일 (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	15%
무역법 제201조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 세이프가드(신급수입제한) 발동 - 1974년 제정 - 2018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O (국제무역위원회)	4년 (최대 8년)	X
무역법 제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또는 차별적 조치 - 보복 관세 부과 - 1974년 제정 - 1기 행정부 시절 2018~2019년 중국이 보조금 정책,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 부과 - 당시 공식 보고서 나오기까지 약 7개월, 실제 관세 부과까지 약 11개월 소요	O (USTR)	X	X
무역확장법 제232조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협 - 품목별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 - 1기 행정부 시절 이 법에 근거해 주요 국가 대상으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 2025년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도 동일한 관세(25%) 적용 - '중국 과잉생산 → 미국 산업 기반 약화 → 안보 위협' 논리	O (상무부)	X	X
관세법 제338조	미국 제품에 차별적 조치 - 과거 실제 실행한 적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 - 1930년 제정	X	X	50%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일시적 요인(셧다운) 제외하고 봐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Macro Alert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트럼프 행정부의 실효관세율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의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찬성 6, 반대 3)하면서 상호관세와 펜타닐·불법이민 관세의 효력이 상실됐다.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고(2/24부터 효력), 이튿날 SNS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제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용 기간이 150일로 한정되며, IEEPA 위법 판결 이전 대비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소폭 낮아지기 때문에(약 1.5%p~3%p로 추정) 금번 정책으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준비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까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불공정 무역을 사유로 특정국,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USTR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해 세부 사항을 며칠 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겠지만,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실효관세율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스인플레이션 가속화는 기대난. 다만 누군가는 얻을 수 있는 이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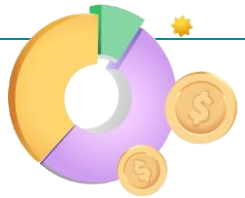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 뉴욕연은은 관세 귀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관세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했다고 보고했으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입업자에서 소비자로 전가되는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구체적인 전가율 파악이 어렵지만, NBER 연구자료는 대형 소매업체의 일별 온라인 소매가격을 이용해 지난해 관세의 단기(6개월 후) 소매가격 전가율을 약 14%~20%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실효관세율이 낮아지면 물가 압력도 줄어들 수 있을까? 가격 경직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미 높인 가격을 다시 낮출 확률은 적다. 단기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관세 비용이 줄어들수록 수입가격은 낮아지므로 생산자의 마진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기업, 더 나아가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의 중장기 재정 우려는 안고 가야 할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를 높이는 요소다. 당장 IEEPA의 관세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관세 체제를 무역법 위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정수입이 종전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 징수한 관세수입의 환급 이슈다.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하급심법원(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면서 환급 대상, 금액,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환

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P는 2025년 12월 14일까지 징수한 IEEPA 관세 수입이 1,33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던 바 있고, 올해 1월까지 누적 IEEPA 관세 수입은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관세 수입 중 IEEPA 관세 수입 비중은 약 52% 수준이다(Penn-Wharton Budget Model 기준). CBP가 이를 일괄적으로 환급해줄지, 혹은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지에 따라 회수금과 기간이 달라질 텐데, 환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위험은 상존한다.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2.23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Nvidia 실적

관세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내부 노이즈 요인에서 제한. 대안에 대한 경계가 충격을 제어. Nvidia 주도의 반전 시도: SMH, PAVE, MADE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특히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291.3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형 ETF 시장 전반(신흥아시아 지역만 제외하고)에 걸친 +367.0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에도 선진·신흥국 시장 전반에 걸친 고른 자금 유입 흐름이 진행되면서 총 +192.5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또 다시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발표 시즌은 막바지 국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Nvidia의 실적발표가 금주 중에 예정되어 있다.

- Nvidia는 수요일(2/25) 미국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순(3/16~19)에 GTC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제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으나, 당장 지난 분기의 실적과 제시되는 가이던스 수준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의 이익률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수요의 지속성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집중할 전망이다.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Rubin)에 대한 로드맵과 비용 인식 부분에 의한 실적 영향도 살펴보는 가운데, 최근 실적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Hyperscalers 기업들의 Capex 확대 전망과 수요 연결 내용은 경계심이 높아진 시장 분위기의 반전 시도로 이어질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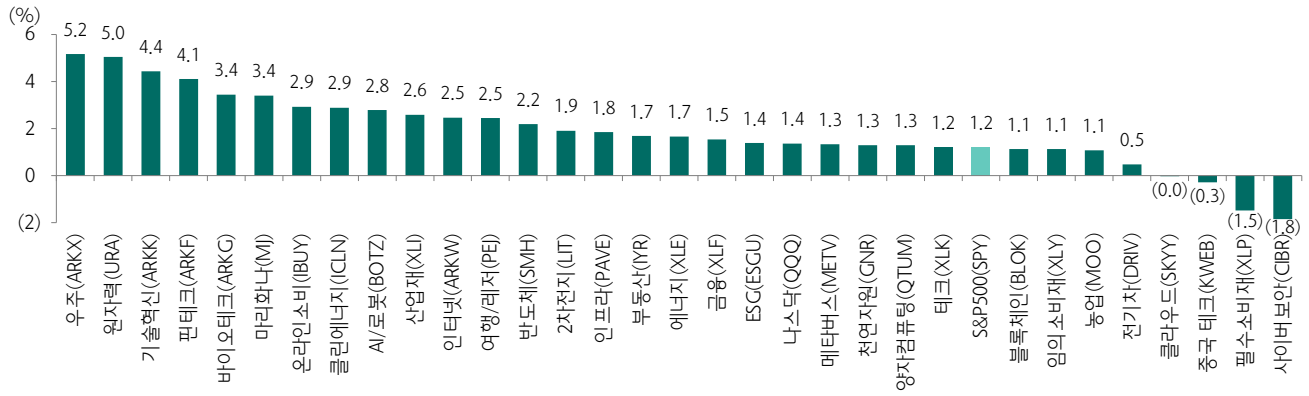
- 이외에도 Dell과 HP의 실적을 통해서는 PC 및 서버 시장의 회복 강도를 점검할 수 있겠으며, Home Depot와 Lowe's의 실적에서 미국 내수 경기 현황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Alibaba와 MercadoLibre, Coupang을 통해 글로벌 소비 상황을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주 테마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Rocket Lab의 가이던스를 확인할 수 있겠다.

- 정책 관점에서는 역시 관세 이슈가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글로벌 15% 관세 도입과 무역법 검토 예고 등의 방법들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화)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물가, 관세 및 이민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보를 밝힐 예정이다. 이미 신속하게 다양한 대안을 활용해 협상 대상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변칙적인 캐릭터를 인지하고 있는 글로벌 각국 정부들은 재협상 요구에 관망 및 소극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과 지지율 압박에 의한 정치적 판단으로 이란 공습 등의 선택지를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하나, 당장 관세 관련 내용이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확인할 것들이 많아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 경제지표의 경우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PPI에 주목해야 하겠다. 24일 발표되는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1월의 급락(84.5pt) 이후 소폭의 반등(87.0pt) 시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추가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셧다운으로 연기되어 27일에 공개될 1월 PPI는 지난 12월에 3.0%대까지 상승했던 흐름의 지속 여부가 금리 관련 연준인사 코멘트들과 맞물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일단 Headline PPI와 Core PPI 모두 12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되었던 연준 인사들의 정책 스탠스와 맞물려, 3월 FOMC를 앞두고 일희일비하는 지표 해석의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분기 진입 후에, 금리인하의 명분들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여전히 AI 산업의 수요 및 실적 기반의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 포지션에 대한 중장기 우선순위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Q/BOTZ(AI&로봇)와 ARKX(우주항공), 현대화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SHLD(방산테크)/KDEF(한국방산), XLE(에너지), 개별 수요 기대와 이벤트 모멘텀 영역의 XBI(바이오테크),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과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과 관세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PAVE(인프라)/MADE(제조업)/XLI(산업재),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GDX(금광)/QDF(퀄리티배당)/QGRO(퀄리티성장) 등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2.16~2.20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크레딧

돌아온 김치본드, 그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재가동된 공모 김치본드 시장

2011년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 규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던 공모 김치본드 시장이 재가동되었다. 공모 김치본드 시장은 2017년 9월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원화 사용 목적 발행을 마지막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2025년 6월 30일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공모 김치본드 투자에 대해 자금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가능하도록 제한을 전면 해제하면서 기대한 방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 7월 이후 한국은행의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개정안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의 '원화 환전 목적 발행 김치본드' 투자가 제한된 바 있음*

현재 김치본드 시장 재개 국면의 특징을 꼽아보면, ① 딜 사이즈가 작고, ② 변동금리부채권(FRN) 구조가 선호되며, ③ 발행 주체가 여전사에서 비금융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현대카드가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2,000만 달러 규모의 1년물 공모 김치본드를 SOFR 대비 60bp 수준으로 발행했고, 이어서 현대캐피탈(2Y FRN/5천만 달러/SOFR+62bp), 현대카드 추가조달(3Y2M FXD/8천만 달러/T+80bp)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심의 김치본드 발행이 이어졌다. 비금융기업 중에서는 롯데물산이 1억 달러 규모의 수요예측에서 약 3배의 오더북을 기록하며 비금융 민간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3Y FRN/1억 달러/SOFR+145bp).

물꼬를 터준 규제 완화, 그러나 핵심은 비용 함수

이번 김치본드 시장의 부각은 ①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과 ② 원화 크레딧(특히 여전채) 조달 여건 변화에 따른 발행사 니즈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규제 완화의 목적을 외화유동성 개선 및 원화 약세 압력 완화로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된 외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고 매도(환전)되는 과정이 달러 공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원화 사용 목적으로 김치본드를 통해 달러를 조달 시, 먼저 달러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사용하기 위해 FX swap(달러 매도/원화 매수) 또는 CRS(원화 지급) 거래를 통해 환 리스크를 헤지한다. 이에 거래상대방인 은행 역시 환 헤지를 위해 달러를 차입해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2011년 당시 김치본드 발행 급증이 상기 거래 과정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와 원화 강세 요인이 되면서 규제 시행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왜 발행사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려면, 발행사 측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재개 국면의 대표 발행 주체가 여전사(카드, 캐피탈)인 만큼, 원화 크레딧 시장에서의 여전채 금리 상승과 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조달 다변화 수요

를 직접적으로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김치본드의 경제성은 발행사의 비용 함수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것이다. 이 비용 함수는 표면금리만이 아닌, [달러(또는 이종통화) 조달 금리 + 환 헤지 비용]의 원화 직접 조달 대비 유불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시장은 원화 크레딧 약세(여전채 스프레드 확대)와 헤지 비용 안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헤지 비용이 불리해질 경우 재개 모멘텀이 있어도 발행 자체는 다시 둔화될 소지가 있다.

발행사, 투자자 각각의 기회와 제약

발행사 관점에서 김치본드는 원화채만으로 조달 수단을 고정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제 3의 조달 창구를 확보한다 것에 의미가 있다. 단, 공모 중심의 제한된 조달 환경과 아직은 얕은 시장 깊이 때문에 초기에는 소형 또는 단기물 중심의 레퍼런스 구축이 합리적이며, 롯데물산 사례처럼 투자 수요가 확인될 시 규모 및 만기 확장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김치본드는 익숙한 발행사의 국내 크레딧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화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화 익스포저를 열어두는 경우 환 변동성이, 헤지 시에는 헤지 비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처럼 규제 우회 논란이 재점화 될 경우 재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모가 제외된 공모 중심의 시장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

2026년 김치본드 시장이 단기간에 대형 시장으로 급팽창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전사, 우량 일반기업 중심의 제한적 발행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는 공모 중심의 규제 완화와 시장 깊이, 비용 함수의 변동성 등의 영향 때문이다. 반면, 원화 약세 환경이 지속되고 원화 크레딧(특히 여전채) 약세가 반복되는 동시에 헤지 비용이 안정적일 경우 발행사 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로 원화 크레딧 강세 전환(스프레드 축소)이나 헤지 비용 급등, 규제 및 감독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김치본드 시장의 재개 속도는 쉽게 둔화될 수 있다.

즉, 현재의 김치본드 시장은 금리 변동성이 높아진 국면에서 정책 모멘텀이 길을 닦아준 대체 조달 옵션으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시장의 실제 활성화는 비용과 수급의 조화 속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 영향 점검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에 15%의 임시 관세를 발표했으며, 향후 국가 안보(232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301조) 등 다른 법적 트랙을 활용해 조사·검토를 진행한 뒤, 관세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로 인도는 기존에 협상 중이던 18%보다 낮은 관세 적용받게 됨

인도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헤드라인 관세를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2월 7일부로 인도에 부과하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징벌적 관세 25%를 철회했으나, IEEPA 기반 상호관세 25%는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양국은 해당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일률 15% 관세 체계로 전환되면서 인도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18%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진행 중이던 협상에는 향후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과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이 포함되는 등 인도 측 부담이 다소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전 5개년 대미 수입액이 약 2,1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5,000억 달러는 과거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무역수지 악화 및 환율 약세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고,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농민 단체의 강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는 등 정치·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관세 인하를 전제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며 잠정 합의를 도출해 온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고율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조기 타결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약화됐고, 핵심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인도는 2월 23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을 연기하며, 변화된 관세 환경을 반영해 협상 조건을 재점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미 수출 환경도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국면에서 미국향 수출이 경쟁국으로 이전되는 흐름이 확인됐던 보석류와 섬유의복 등 품목은 관세 격차 축소에 따라 주문 정상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고율 관세 부담 완화 및 협상 여력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기대

증시 관점에서는 그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쟁국 대비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됐고, 인도의 협상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수의 하방 압력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다른 법적 트랙을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232조나 301조에 기반한 관세는 명확한 상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만큼 관세 경로의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 변수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 미국의 추가 관세 트랙 가시화 여부, ② 인도–미국 협상 재개 여부, ③ 기존 잠정 합의 조건의 수정 범위 및 세부 내용이다.

2026년 02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3월 전략 – 자사주냐 배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2.23)	67,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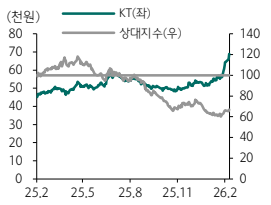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46.09
52주 최고/최저(원)	68,900/46,350
시가총액(십억원)	17,061.9
시가총액비중(%)	0.36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63.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5.8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8,272.9	27,821.8
영업이익(십억원)	2,450.8	2,170.6
순이익(십억원)	1,781.8	1,582.9
EPS(원)	6,527	5,877
BPS(원)	71,657	74,92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26,376.3	26,431.2	28,244.2	28,930.4
영업이익	1,649.8	809.5	2,469.0	2,220.6
세전이익	1,324.1	584.7	2,417.9	2,239.4
순이익	1,009.9	470.3	1,730.8	1,607.3
EPS	3,887	1,850	6,868	6,378
증감율	(19.61)	(52.41)	271.24	(7.13)
PER	8.85	23.70	7.66	10.61
PBR	0.52	0.67	0.74	0.90
EV/EBITDA	3.41	4.31	3.62	4.17
ROE	6.05	2.85	10.29	8.97
BPS	66,498	65,177	70,942	74,880
DPS	1,960	2,000	2,400	2,6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6,000원으로 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상황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76,000원으로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비용 구조 개선으로 2026년에도 본사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2) 케이뱅크의 IPO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 여전히 PBR과 주주환원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불확실성이 커 3월 추천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3월 KT 주가가 중대한 기로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으로 전환해 지급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할 것인데 만약 자사주 강행일 경우 현 가격대에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당 전환이 결정 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여전히 자사주의 배당 전환은 가능한 상황, 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듯

KT는 2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2,5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였다. 단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관계로 실제 소각은 외국인 한도에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2026년에도 배당 전환이 아닌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500억원의 주주환원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가들이 대다수이지만 아직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신탁 계정이라 철회가 가능하고 KT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3차 상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사주 의무 소각이 시행되고 외국인 한도 기업 예외 규정 적용이 없다면 KT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배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단, 이미 공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외국인 한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면 번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3월 자사주 강행 여부가 중요, 4월 DPS 600원이라면 보수적 판단 추천

KT의 경우엔 3월 자사주 매입 강행이냐 아니면 배당 전환으로 수정할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매매에 임할 것을 권한다. 더불어 4월 1분기 DPS 발표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당전환이 이루어지고 1분기 DPS 700원 또는 900원이상 예측이 나오면 현 가격대 매수 지속, 자사주 강행 및 1분기 DPS 600원 예상이 나오면 7만원 이상에선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을 권한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포함 및 외국인 한도 기업 예외 적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배당 전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높일 시점이다. 배당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분기 DPS가 900원까지 높아질 수 있어 10만원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분간 소각이 불가한 자사주 매입이 강행된다면 이를 주주환원으로 인정할 투자가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75,000원 이상의 주가는 부담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026년 02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3월 전략 – 호재 상존, 여기서 더 오를 것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2.23)	17,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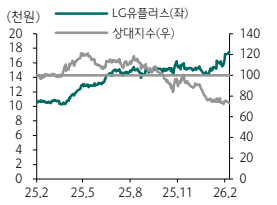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46.09
52주 최고/최저(원)	17,500/10,250
시가총액(십억원)	7,436.0
시가총액비중(%)	0.16
발행주식수(천주)	429,82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80.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7
외국인지분율(%)	42.11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7.3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5,529.1	15,707.7
영업이익(십억원)	923.2	1,124.7
순이익(십억원)	554.0	716.2
EPS(원)	1,297	1,705
BPS(원)	20,781	21,69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14,372.6	14,625.2	15,451.7	15,628.9
영업이익	998.0	863.1	892.1	1,119.6
세전이익	770.9	450.6	680.3	912.9
순이익	622.8	374.5	515.4	730.3
EPS	1,426	858	1,188	1,699
증감율	(6.12)	(39.83)	38.46	43.01
PER	7.17	12.04	12.39	10.18
PBR	0.52	0.52	0.72	0.77
EV/EBITDA	3.21	3.09	3.20	2.65
ROE	7.49	4.40	5.93	8.08
BPS	19,633	19,825	20,582	21,347
DPS	650	650	660	7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유지/TP 20,000원 유지,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 없어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2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서비스매출액 증가/인건비 감소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및 연간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2) 올해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것이 유력한데 매입 규모가 2025년보다 클 것으로 보여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2027년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며, 3) 최근 1년간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주주환원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과 자사주 매입 증액이 상반기 LGU+ 주가 올릴 것

LGU+의 경우 3월과 4월엔 1분기 실적과 자사주 매입 규모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QoQ 크게 증가할 것이며 자사주 매입 규모 역시 2025년 800억원에서 2026년도 9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6년 1분기 실적 호조는 아무래도 SKT 영업정지에 따른 상대적 수혜, 비용 감축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클 전망이다. 2025년 2분기 이후 이동전화매출액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영향과 CES 등 각종 행사 비용 감축 요인이 더불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분기대비로는 인건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더불어 자사주 매입 규모 증가도 LGU+ 주가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U+의 경우엔 올해 자사주 매입분이 내년에 소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장기 주주환원 기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투자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5G SA 시대 돌입 감안하면 2만원 이상의 주가 형성은 무난할 듯

최근 1년간 LGU+의 높은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현 가격에도 여전히 매수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2026년 기준 주주환원수익률이 5%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6년 두 자리 수 높은 이익 성장과 더불어 6%에 달하는 DPS 성장, 지난해대비 100억원 이상 늘어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장기 이익/주주환원 성장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LGU+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7년엔 다시 유의미한 주주환원 증가가 가능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5G SA로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과거LTE/5G 도입 당시의 배당수익률 밴드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상반기 내 최소 주주환원수익률 4.5% 수준인 2만원까지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2026년 02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3월 전략 – 5G SA 진화 감안 시 한참 더 오를 것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
현재주가(2.23)	80,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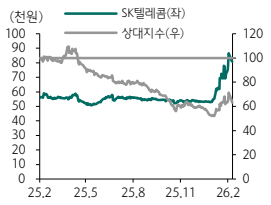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46.09
52주 최고/최저(원)	86,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7,204.7
시가총액비중(%)	0.36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65.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1.9
외국인지분율(%)	38.25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66.7	17,725.9
영업이익(십억원)	1,063.9	1,841.8
순이익(십억원)	362.7	1,232.5
EPS(원)	1,695	5,665
BPS(원)	54,000	57,37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099.3	17,816.1
영업이익	1,753.2	1,823.4	1,073.2	1,878.8
세전이익	1,488.2	1,761.8	722.2	1,558.8
순이익	1,093.6	1,250.2	408.3	1,150.2
EPS	4,997	5,810	1,901	5,355
증감율	19.86	16.27	(67.28)	181.69
PER	10.03	9.50	28.14	14.96
PBR	0.94	1.01	0.97	1.37
EV/EBITDA	3.87	3.73	4.29	4.14
ROE	9.63	10.83	3.47	9.48
BPS	53,424	54,898	55,418	58,393
DPS	3,540	3,540	1,660	3,6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TP 10만원/통신업종 탑픽 유지, 재료/수급 모두 최상의 조건 갖춰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하며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3월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2026년 1분기 DPS가 800원 이상으로 발표될 전망이라 조기 배당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2) 낮은 기저에 힘입어 2026년도에는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며, 3) 외국인 지분율이 38%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 향후 AI 펀드 편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수급 개선 가능성이 높고, 4) 높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이 4.5% 수준으로 5G SA 시대 개막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시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5G SA 도입 및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되었고 1분기 SKT DPS 발표가 4월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내엔 SKT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중요한 건 엔트로픽이 아니라 5G SA 요금제, AI+양자암호 핵심 서비스될 것

일부에선 최근 SKT 주가 상승을 엔트로픽 지분 매각 차익 기대감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최근 SKT 주가 상승엔 다른 근원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5G SA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이익 성장과 배당 정상화가 기대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특히 SKT는 AI와 양자암호통신을 기반으로 5G SA 요금제를 특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퀀텀 사업 본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 중이다. 5G SA 시대에 선도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이며 이는 Multiple 확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여전히 2026년 SKT DPS가 3,600원에 달한다고 보면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며 비과세 배당을 감안하면 세후 수익률에선 더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과거 LTE/5G 요금제 개편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이다. 이제는 5G SA 시대의 SKT 적정 기대배당수익률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SKT 주가는 궁극적으론 기대배당수익률 3%선인 12만원까지도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과거 사례 감안하면 SKT 12만원까지도 상승 가능, 향후 추가 TP 상향 조정 예정

벌써부터 SKT 주가 고평가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5G SA 시대로의 진입을 인지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과거 통신사 기대배당수익률은 네트워크 진화 시점에 따라 2~7%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 5%를 적정 수준으로 오판한 결과다. 이미 글로벌 통신사/IT 업체들은 5G SA 시대를 준비 중이다.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SKT 기대배당수익률은 LTE 도입 시점과 비슷하게 3%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5G SA 진화 속도에 맞춰 SKT 목표주가 상향 조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026년 2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CJ프레시웨이 (051500)

코스닥 내 돋보이는 실적주

BUY (신규)

목표주가(12M)	48,000원
현재주가(2.23)	34,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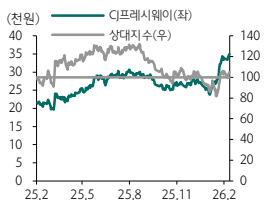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51.99
52주 최고/최저(원)	34,950/19,630
시가총액(십억원)	414.9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11,871.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
외국인지분율(%)	15.14
주요주주 지분율(%)	
CJ 외 5 인	47.89
EFG PRIVATE BANK SA	10.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97.2	4,077.3
영업이익(십억원)	114.1	127.5
순이익(십억원)	68.0	77.9
EPS(원)	5,488	6,404
BPS(원)	42,585	50,04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24.8	3,481.1	3,755.5	3,980.9
영업이익	94.0	101.7	112.0	126.9
세전이익	41.8	61.1	84.0	102.2
순이익	25.9	49.5	64.2	75.5
EPS	2,184	4,170	5,411	6,360
증감율	(52.41)	90.93	29.76	17.54
PER	7.99	6.41	6.25	5.31
PBR	0.50	0.69	0.77	0.68
EV/EBITDA	3.14	3.35	3.33	2.67
ROE	7.36	11.32	13.14	13.64
BPS	34,990	38,710	43,671	49,581
DPS	450	450	450	45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증진된 체력 VS. 반영 못한 시가총액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8만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한다. 역사적 밴드 중단 값인 Target PER 8배를 적용했다. 2018년 500억원에 불과했던 연결 손익은 2025년 1천억원을 상회했다. 반면, 시가총액은 2018년 4,000억원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리오프닝 이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탑라인 성장을 시현 중이다. 축육 식자재 구매 방식 변화를 통해 과거 대비 이익 가시성이 향상된 점도 긍정적이다. 최근 2~3년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안정적인 대기업 식자재 업체로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① 2025년 프레시원 통합 합병 기인한 물류 효율화 및 영업 시너지, ② 온라인 채널 영업 강화에 따른 선점 효과, ③ 급식 부문의 안정적 이익 창출 기인한 기업 가치 Level-up이 기대된다.

4Q25 Re: 시장 기대 부합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8,980억원(YoY 5.6%), 300억원(YoY 19.0%)을 시현했다.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 ① 급식 부문 매출액(급식 식자재 제외)은 YoY 11.7% 증가한 2,140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 케이터링 수주 효과가 본격화되는 한편, 기존 고객사의 견조한 식수 기인해 두 자리 수 성장을 시현했다. 2025년 연간으로는 YoY 8.3%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② 식자재 부문 매출액(급식 식자재 포함)은 YoY 4.7% 증가한 6,777억원을 시현했다. 채널별로는, 급식 YoY 8.3%, 외식 -6.2%, 원료 28.9%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급식 경로는 키즈 및 실버 채널이 각각 YoY 11%, 10% 성장하면서 견인했다. 외식 경로는 온라인 채널 다각화 기인해 단기 매출 부침이 있었다. 원료 경로매출 고성장은 계열사 내 시너지 확대 및 명절 앞둔 물량 증가 효과에 기인한다. ③ 식자재 부문 내 온라인 채널 매출은 2025년 연간 1,058억원 시현했다. 1H25 분기 300억원 내외에서 2H25 200억원 내외로 단기 부침이 있었으나, 2Q26부터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망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3조 7,555억원(YoY 7.9%), 1,120억원(YoY 10.1%)으로 추정한다. 식자재 부문은 온라인 채널 강화에 따라 하반기 갈수록 매출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구매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통합 배송 서비스를 통한 공급자 바인딩 효과로 단기 가파른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급식 부문은 인천공항 케이터링 수주 확대에 따른 탑라인 및 영업마진 개선이 예상된다. 키즈/실버 채널에서의 입지 강화도 긍정적이다.

2026년 2월 24일 | 기업분석_ Earnings Review

SK오션플랜트 (100090)

해상풍력 매출 성장과 마진 상승 기대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0원
현재주가(2.23)	18,7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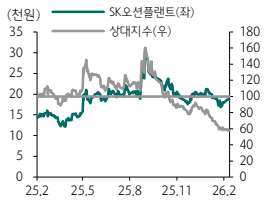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46.09
52주 최고/최저(원)	30,300/12,160
시가총액(십억원)	1,172.7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62,478.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6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8
외국인지분율(%)	6.21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케이에코플랜트	35.62
송무석 외 4 인	14.9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054.2	825.6
영업이익(십억원)	63.2	78.4
순이익(십억원)	35.6	44.0
EPS(원)	587	701
BPS(원)	11,997	12,98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925.8	662.6	965.4	816.9
영업이익	75.6	41.8	59.5	87.1
세전이익	63.1	17.6	45.9	70.0
순이익	57.5	16.4	37.8	53.2
EPS	1,041	277	625	852
증감율	98.66	(73.39)	125.63	36.32
PER	18.99	46.46	32.40	21.96
PBR	1.68	1.07	1.60	1.39
EV/EBITDA	13.54	12.71	17.18	12.10
ROE	9.46	2.34	5.04	6.51
BPS	11,734	11,974	12,657	13,509
DPS	0	0	0	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2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SK오션플랜트 목표주가 2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단일 연도 기준 해상풍력 수주와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 신규 수주는 상선과 MRO에서 664억원을 기록했다. 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12,385억원으로 해상풍력 9,702억원, 강관 및 플랜트 43억원, 특수선 1,973억원, 상선/MRO 66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하부구조물은 한국과 대만에서, OSS 자켓은 한국과 유럽에서 연내 대규모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 2026년 기준 PER 22.0배, PBR 1.4배다.

4Q25 영업이익 137억원(YoY +410.9%)으로 컨센서스 하회

4분기 매출액은 1,7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해상풍력은 69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둔화되었지만 특수선은 8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안마도해상풍력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매출 이연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은 Feng miao 프로젝트 실적 인식이 본격화되었다. 기존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Formosa4, 안마해상풍력은 상반기, Formosa6는 하반기에 강재절단이 시작되며 상저하고 흐름의 가파른 매출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수선은 호위함 배치 Ⅲ 2,3번함 시운전 매출이 반영되고 있으며 4번함은 정상적으로 건조되는 중이다. 영업이익은 1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10.9% 증가했다. 분기 마진은 7.8%로 전년대비 6.2%p 개선되었다. 2025년 전사 매출에서 해상풍력 비중은 33.7% 수준으로 낮았지만 2026년 70%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매출 Mix 개선에 비례하여 전사 마진 또한 상승할 전망이다.

신조 시장 재진입. 상선 및 FPSO 건조로 야드 효율성 개선 기대

2025년 실적은 특수선 매출 본격화 및 해상풍력 기여도 상승 등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한편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2025년 대비 14.9% 감소한 8,217억원으로 제시되었다. 조선부문의 특수선 공정 완료 단계에 의한 매출액 감소가 주된 사유로 추정된다. 해상풍력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사 외형 감소와 달리 이익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5년 12월에 6.8K 메탄올 이중연료 탱커를 수주하며 상선 신조 시장에 다시 진입했으며 향후 컨테이너와 탱커 중심 수주 활동이 예상된다. FPSO도 지난 2023년 Barosa FPSO 선체 인도 이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수주를 목표로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신야드 투자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어 하부구조물 제작과 병행 가능한 수준에서 상선 및 FPSO 건조를 통해 야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수선에서 태국 호위함 수주 여부가 2분기 중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 MRO 사업 참여를 위한 MSRA 자격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기존 상선 MRO 대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2026년 02월 24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3월 투자 전략

곧 5G SA 시대에 걸맞는 주가 형성될 것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2월 23일

SKT(017670)
BUY | TP 100,000원 | CP 80,1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67,7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7,30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3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투자 환경 변화 감안 시 여전히 저평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3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제시한다. 연초부터 5G SA 도입 이슈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국내 규제 기관에서는 5G SA 전환을 위한 민/관 워킹 그룹을 발족했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치 2019년도와 흡사한 분위기이다. 갑자기 5G SA가 AI 발전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조기 SA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통신 3사는 5G SA 특화 요금제부터 시범 사업 등 요구 사항을 적극 제안할 전망이다. 최근 5G SA로 진화하기 위한 작업이 규제 기관에 이어 사업자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통신장비는 물론 통신서비스 업종까지 Multiple 확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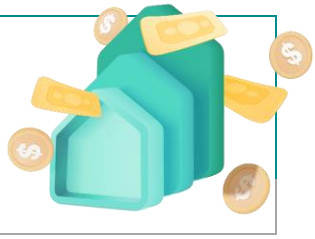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1분기 DPS 발표에 관심 높일 시점, SKT 방향성 좋아 투자 심리 회복 전망

2월과 달리 3월 통신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표될 5G SA 진화 로드 맵, 2) 암호 화폐 해킹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본격 도입 논의, 3)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및 외국인 한도 기업의 예외 적용 여부 결정, 4) SKT 1분기 DPS 조기 정상화 가능성, 5) 과기부 해킹 관련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등이 아마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과기부 해킹 관련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가 남아 있긴 하나 아마도 악재 소멸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5G SA로의 진화 및 양자암호통신 도입 본격화 이슈는 통신주에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궁극적으론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을 서비스해 새로운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T의 DPS 조기 정상화 가능성 역시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방향성도 좋지만 DPS가 3,600원 수준에 달한다면 기대 배당 수익률 역시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이다.

3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재료 감안 시 SKT 가장 매력적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하며 3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평가한다. 3월에도 SKT를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는데 재료가 많고 기대 배당수익률이 우수하며 수급도 양호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최근 SKT 주가 상승을 엔트로픽 지분 매각 차익 기대감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는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5G SA로의 전환을 맞이하여 양자암호통신과 AI를 요금제에 탑재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퀀텀 부문 및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성과가 우수해 5G SA 시대에 선발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양했던 원전 뉴스



건설 Weekly | 2026.2.2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0%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 외인, 연기금 모두 매수했다. 기관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매수했으며, 외인은 삼성E&A, GS건설을 중심으로 매수했다. 원전 관련 종목(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상승했으며, 유가 상승 분위기에 삼성E&A의 주가도 상승했다. 최근 시장에서의 저PBR 관심 환기에 따라 주택주(GS건설 및 중소형주 등) 또한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2으로 2주 만에 재차 하락했다(-0.5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주 연속 상승(+0.06%), 전세가는 36주 연속 상승했다(+0.07%). 수도권 매매가는 51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52주 연속 상승(+0.09%) 했다. 서울 매매가는 56주 연속 상승(+0.15%), 전세가는 53주 연속 상승(+0.08%)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16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29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25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5%). 광역시별 매매가는 인천(+0.03%), 부산(+0.03%), 울산(+0.11%), 대전(+0.03%)이 상승한 반면, 광주(-0.02%), 대구(-0.02%)는 하락했다.
- 한 주간 원전 관련한 이벤트들이 많았다. 먼저 현대건설과 파트너쉽을 맺은 미국 홀텍이 기업가치 100억달러를 목표로 연내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2/9 비공개로 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홀텍은 미국에서 SMR 2기를 준비 중(사전작업허가 신청서 제출)이며, 헝가리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스템 등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백악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카메코의 실적발표가 있었다. 실적발표에서 올해 실행의 해로 정의하며 올해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의 실행단계로 보고 있으며, 장기조달 품목의 발주와 부지 작업 등 올해 착수단계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시장은 10기 정도의 증설이 아니라 20기에서 30기 규모의 건설을 논의한다고도 말했다. 다른 뉴스로는 루마니아의 뉴스케일 SMR 6기 착수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이 내려졌다. 462MW, 60억~70억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5월까지 지반조사, 인허가, 사전EPC 계약, 장기조달품목 계약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첫번째 모듈은 2033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SMR 개발에 대한 방향이 수립됐다. 과거 발표된 SMR 계획 일정은 2029년말 건설허가, 2030년말 첫 모듈설치, 2034년말 운영허가다.
- 2/12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책이 발표됐다. 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6개월 내(신규 지정 조정지역)로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다. 토허제 허가일로부터는 6개월 내 해당주택 입주 의무다. 여기에 임대중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임대차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다만 늦어도 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해야한다. 이러한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 최근 국제 정세(관세, 이란, 멕시코 등)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특히 유가와 관련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업종에서 중요한 이벤트는 주택 지표와 해외 수주, 해외 원전 뉴스다. 주간 추천종목으로 GS건설, 삼성물산, 아이에스동서를 제시한다.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2.2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무역 및 건설 지표로 보는 미국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형: 인공지능 인프라(IT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속

-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촉발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미국 AI 인프라 확장 사업은 초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MSFT, GOOGL, ORCL, META, AMZN 등)의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연초 5,578억 달러에서 6,782억 달러로 21.6% 상향됐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의 대부분을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는 서버, 40%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킹에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자본지출의 2/3을 단기 자산(IT 장비)에 집행했다고 한다.
- 미국의 수출입 지표와 건설지표도 데이터센터 및 IT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지한다. 1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703억 달러다. 전년 대비 상품 수입은 7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매월 감소했지만, 수입 항목 중 자본재는 연초부터 매월 증가했다.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타났다. 세부 품목 중 매월 전년보다 많이 수입한 제품은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주변기기), 발전기, 통신장비 등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제품들이다. 내부 생산이 제한적인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높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YoY)도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준다.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연초부터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고, 10월부턴 세 자릿수 YoY 성장률을 보였다. 수입 품목 중 컴퓨터도 10월부터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난다. 엔비디아와 AMD 등의 고성능 반도체(가속기 등)는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된 후 폭스콘, 콴타, 위스트론 등 대만이나 멕시코에 위치한 ODM 업체로 보내져 서버로 만들어진다. 완성된 제품은 서버 랙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자본재 수출도 매월 증가했다. 자본재 중 연초부터 매달 전년 대비 수출이 확대된 품목은 민항기, 민항기 엔진,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등이다. 통신장비도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보다 수출이 늘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의 베이스 캠프이자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7월 AI Full Stack Package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AI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도 미국의 AI 인프라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바통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건설 지표도 장기자산(건물 등)보단 단기자산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민간 건설 연구기관인 Dodge Construction Networks*의 1월 건설 계획(Dodge Momentum Index)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상업용 건설 계획은 YoY +26%, 기관 건설 계획은 YoY +34%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지수가 6.4% 감소했는데, 지수를 견인하던 상업 부문이 12월보다 7.1% 둔화됐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로는 위축됐으나, 여전히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은 양호하다. 전년 대비 상업용 건설 계획은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17% 증가한 수준이다.

2026년 2월 24일 | Global Equity

에어버스(AIR.FP)

2026년 인도량 가이던스 870대(+10%)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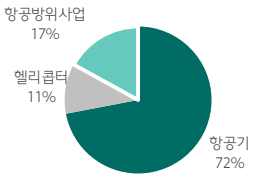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22.30 EUR
CP(2.20)	189.74 EUR

Key Data

국가	FRANCE
상장거래소	EN Paris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우주항공 & 국방
홈페이지	www.airbus.com
시가총액(십억EUR)	150.3
시가총액(조원)	256.3
52주최고/최저()	221.3/125.46
주요주주 지분율(%)	
프랑스 공화국	10.83
독일연방공화국	10.82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8.5)	4.9	18.6
상대	(14.0)	(2.4)	14.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9,230	73,420	81,698	91,385
영업이익	4,954	5,777	7,899	9,462
순이익	4,232	5,221	6,012	7,192
EPS(EUR)	5.1	6.6	7.5	9.1
EPS(YOY, %)	(9.8)	30.7	13.0	22.3
ROE(%)	22.7	22.8	22.7	23.9
PER(배)	28.9	30.0	25.5	20.8
PBR(배)	6.2	6.0	5.3	4.5
배당률(%)	1.2	1.6	1.7	2.1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5년 연간 여객기 인도량 793대, 목표치 미달

에어버스의 2025년 연간 여객기 인도량은 793대로 목표치인 820대에 미달했다. A320 엔진(Pratt & Whitney 생산) 생산 차질이 하반기 여객기 인도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25년 말 오더북은 8,754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4분기 매출액은 항공기/헬리콥터 인도량 증가로 5% (YoY) 증가한 €260억, 영업이익은 17% 증가한 €29.8억(영업이익률 11.5%)을 기록했다. 여객기 사업부 매출액이 5% (YoY) 증가했고, 헬리콥터 사업부 매출액도 8% 증가했다.

2026년 여객기 인도량 가이던스로 870대 제시

에어버스는 2026년 가이던스로 여객기 870대(+10% (YoY)) 인도와 영업이익 €75억(+5%)을 제시했다. A320 엔진 공급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7년까지 월간 70~75대로 A320 생산량이 안정화 될 것으로 밝혔다. 항공우주 사업부는 레오나르토/탈레스의 항공우주 사업부와 통합되어 신규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글로벌 항공시장 내 항공기 부족 현상 장기화 예상

에어버스는 2025년 A320 607대, A220 93대, A330 36대, A350 57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A330은 2029년까지 월 5대, A350은 월 12대의 생산 목표를 재확인했는데, 연 환산시 60대/144대로 2025년의 연간 주문량(102대/193대)에도 못 미친다. A320의 경우 엔진 생산 차질을 제외하면 주문량과 인도량이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광동체 위주의 항공기 부족 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잉은 2025년 여객기 600대를 인도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70% 수준의 회복률을 기록했다. 여객기 제조 뿐만 아니라 엔진 및 전반적 공급망에 발생한 생산 지연은 당분간 글로벌 항공기 공급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에어버스의 2026년 생산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생산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은 견고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2월 24일 | Global Equity

에퀴닉스(EQIX.US)

P, Q 고성장, 그리고 사상 최대 수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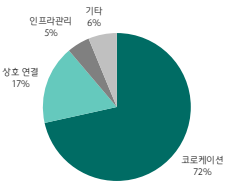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013.43 USD
CP(2.22) 928.11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부동산
주요 영업	특수 리츠
홈페이지	www.equinix.com
시가총액(십억USD)	91.2
시가총액(조원)	131.6
52주최고/최저(USD)	992.9/701.4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3.64
블랙록	11.0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7.1	18.0	0.9
상대	17.1	11.2	(14.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USD)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8,748	9,217	10,163	11,053
영업이익	1,328	1,848	2,250	2,563
순이익	815	1,350	1,564	1,698
EPS(USD)	8.5	13.8	15.8	16.9
EPS(YOY, %)	(17.6)	61.9	15.1	7.0
ROE(%)	6.3	9.8	11.9	12.9
PER(배)	85.3	53.0	58.6	54.8
PBR(배)	6.8	5.3	6.4	6.4
배당률(%)	1.8	2.4	2.2	2.4

자료: Equinix, 하나증권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4Q25 Review: 컨센서스 하회

2025년 4분기 실적은 총 매출액 24.2억달러(YoY +7.0%), 주당 AFFO는 8.91달러(YoY +12.5%), 조정 EBITDA는 11.9억달러(YoY +16.2%)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 올해 성장의 핵심은 1) MRR 가속화, 2) 가격 인상 기조 유지, 3) 신규 용량 추가 세 축으로 강조했다. 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101.2억~102.2억달러로, YoY 약 +10~11% 성장, MRR부문 성장률은 YoY 약 +8~10%로 제시했다. 연간 조정 EBITDA는 51.4억~52.2억달러이며, 마진은 51%로 2025년(49%) 대비 약 200bps 확대가 전망된다. 1분기 배당은 주당 5.1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인상됐으며, 2015년 이후 11년 연속 배당 성장이다.

초과수요 시장 지속 중

①4분기 총 예약(Gross Bookings)은 AI 워크로드 딜 증가와 함께 4.7억달러(YoY 42.0%)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분기 중 4,500건 이상의 신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상위 60여 개 대형 계약이 모두 AI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에퀴닉스가 제공하는 낮은 네트워크 지연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단가 인상 정책을 통해 실적을 견인했다.

②월반복매출(MRR)은 환 변동과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고 YoY 약 10% 가량 성장했다. 글로벌 평균 캐비닛당 MRR은 2,518달러(YoY +8.3%)로, 계약 갱신 시 2~5%의 단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AI·HPC용 장비 도입으로 랙당 전력 소비가 늘고 자사 플랫폼인 에퀴닉스 패브릭(Equinix Fabric) 등 상호연결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면서 고객당 창출 매출 자체도 커지고 있다.

③물리적 수요를 가늠하는 캐비닛 수(Net Cabinets Billing) 역시 호조를 보였다. 한 분기 만에 4,300개 늘어난 299,300개로, 최근 3년 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역별로 미주 1,800개, APAC 1,100개, EMEA 1,400개가 각각 늘며 특정 지역 쏠림 없이 고른 성장이 나타났다. 시카고, 댈러스,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거점에 4분기에만 12,300개의 신규 용량을 공급했음에도 분기 말 가동률이 76%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초과 수요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객군 다변화를 통한 리레이팅

컨센서스 하회에도 불구하고 실적발표 후 주가는 급등하며 52주 신고가에 근접 중이다. AWS·Azure 등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사이클에 종속된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AI 관련 딜의 절반을 리테일 등 일반 기업에서 수주를 진행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우려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멀티플 리레이팅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안정적인 외형 성장에 따른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바 여전히 매수 유효 구간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2/23	190,100	193,000	1.5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2/23	168,800	168,700	-0.06%	• 4Q25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SK이노베이션 (096770.KS)	2/23	127,600	128,400	0.63%	• E&S 합병에 따른 시가총액 상승가치 7조원 제외 시 현재 시가총액 S-Oil과 유사한 수준 • 정제처리량 Capa 115만톤으로 S-Oil 대비 약 2배인 점 감안 시 저평가 영역
삼성증권 (016360.KS)	2/23	114,500	109,400	-4.45%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대한항공 (003490.KS)	2/23	25,150	26,450	5.17%	• 4Q25 항공우주 사업부 매출액 3,0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 항공우주 사업부가 대한항공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모습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23	32,050	31,200	-2.65%	•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에코프로비엠 (247540.KQ)	2/23	214,000	209,500	-2.10%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기대감
쏠리드 (050890.KQ)	2/23	9,550	8,850	-7.33%	• 2026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본격화될 예정 • 유럽 시장 매출처 확대와 미국 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이익 성장 추세 지속 전망
하림지주 (003380.KQ)	2/23	16,660	16,790	0.78%	• 돈가 상승 및 팬오션 실적 회복 기인해 실적 개선 흐름 기대 • 저평가 매력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
시지메드텍 (056090.KQ)	2/23	2,305	2,930	27.11%	• ECM 스킨부스트 시지리알로 인젝트 파인 1Q26내 출시 예정 • 대웅그룹 관계사 편입 후 사업 재편 완료. 실적 성장 본격화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86%	+1.22%p	+42.32%	+8.7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23	32,050	31,200	-2.65%	•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68,700	12.99%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72,000	16.54%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오리온 (271560.KS)	2/9	124,000	136,000	9.68%	• 25년 상반기 톤당 만달러까지 상승했던 카카오 가격 현재 6천달러 내외까지 하락 • 중국 내 주요 부자재 및 원자재도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 완화 예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2/9	100,000	96,400	-3.60%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케이엠더블유 (032500.KQ)	2/2	18,920	19,750	4.39%	• 삼성과 더불어 에릭슨, 노키아로의 매출 확장 가능성 상승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기아 (000270.KS)	1/12	133,200	172,700	29.65%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93,000	60.9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51,000	46.08%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75,600	53.50%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4,500	37.95%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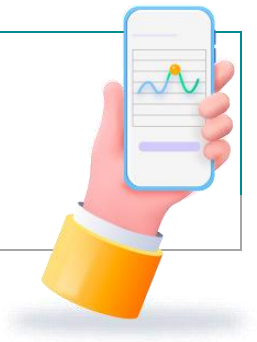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9.19%	-4.42%p	+29.19%	-4.4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3,905	13.1%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910	60.8%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4,585	11.6%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4,640	51.1%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3.61	0.8%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4.88	20.2%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15.03	22.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81	20.1%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88.6, 1월 87.6)	▪ 미국 12월 제조업 수주 (E --, 11월 2.7%)	▪ 유로존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0.5%/1.7%)	▪ 한국 2월 금융통화위원회 (E --, 1월 2.5%)	▪ 일본 2월 CPI 발표 (E --, 1월 2.00%) ▪ 독일 2월 IFO 기업환경 (E --, 1월 87.6)	
3.1	3.2	3.3	3.4	3.5	3.6	3.7
한국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증가율 YoY (E --, 1월 33.9%)	▪ 중국 2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1월 50.3) ▪ 미국 2월 ISM 제조업 지수 (E --, 1월 52.6)	▪ 일본 1월 실업률 발표 (E --, 12월 2.6%)	▪ 중국 2월 제조업 PMI 발표 (E --, 1월 49.3) ▪ 미국 2월 ADP 취업자 변동 (E --, 1월 22K)	▪ 미국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한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0.4%) ▪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변동 (E --, 1월 130K)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